

고흥군,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현장교육 실시 호응

두 달간 60여개 마을 여성농업인 800여 명 대상 여성농업인정책 소개 및 농작업 편이장비 실습

고흥군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참여 기회 활성화를 위해 고흥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고흥여성농업인센터(센터장 박상규)는 지난 7월부터 두 달여 동안 고흥군 60여개 마을 여성농업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효율 개선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전문 강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 각종 여성농업인 정책을 소개하고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법을 실습하는 과정으로 운영됐다.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농촌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자는 교육 취지에 부합되게 현장의 호응은 뜨거웠으며, 애로·건의 사항 등 많은 의견을 모으는 기회가 됐다. 여러 의견 중 '고령층 또는 여성농업인 대상 우선으로 지원하는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농작업 편이장치, 맞춤형 농기계 등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나, 앞으로 지원하는 농기계 범위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건의도 있었다. 고흥군에서는 "교육기간 수렴된 여성농업인



의 애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9월 7일까지 시책·표어 발굴 및 시상

광양시는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함께 만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7일까지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행복한 광양'이라는 주제 아래 ▲청렴시책 ▲청렴표어 2개 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청렴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다. 제안을 원하는 이는 청렴한 공직문화와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안과 청렴 실현에 대한 표어를 작성해 등기우편(광양시 행정2길 5, 4층 감사실 조사팀) 또는 이메일(jangmi71@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돼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적합성, 효과성, 창의성, 계속성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 전문심사단을 구성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시책분야 최우수 50만 원(1명), 우수 30만 원(2명), 장려 10만 원(3명), 입선 5만 원(6명) ▲표어분야 최우수 20만 원(1명), 우수 10만 원(2명), 장려 5만 원(2명)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여수시, 다음 달 5일까지 '지역 쌀 사주기 운동' 전개

시청 직원, 전국 여수향우회원, 유관기관 및 단체 참여

여수시가 다음 달 5일까지 '지역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지역 쌀 사주기 운동은 최근 기상변화와 수입 농산물 개방 확대, 쌀 가격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2일부터 실시한 여수시정 전 직원 대상 지역 쌀 사주기 운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여수향우회원,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구매 기간은 9월 5일까지며, 행사 참여 시 쌀 20kg 기준 판매가격은 시중가보다 5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쌀 구매에 따른 문의사항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특수품육성과(☎061-659-4514)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행사가 끝나고 지역 쌀 구매

를 원할 경우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여천 농협 쌀'을 검색한 후 여수쌀 전문 쇼핑몰인 '섬뜰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내부 부진, 쌀 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역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12,500kg, 3천 2백여 만 원 상당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매주 목·금 판소리성지 보성에서 소리 배워보자"

보성군은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목, 금요일에 보성판소리성지에서 하반기 판소리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판소리 교실은 오후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총 2개 반(초급반, 중급반)으로 운영된다. 명창 한정하(초급반), 명창 박준맹(중급반)을 강사로 섭외하여 진행되며, 각 반 별로 20명 내외(선착순)를 모집 예정이다. 판소리교실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방법은 보성군 홈페이지·열린행정·공연/행사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보성판소리성지 방문 접수, Fax(061-850-5249) 등으로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성=김명순기자

순천시, 판소리 '수궁가'와 순천만 '용산 설화'가 만나다

내일 가족 창극 '순천만 수궁가' 무료 제공연



순천시는 오는 26일 순천만국가정원 내 순해서 그대로 내려앉아 지금의 용산이 되었다

천만국제습지센터 야외공연장에서 가족 창극 '순천만 수궁가'를 무료로 제공연 한다. '순천만 수궁가'는 판소리 수궁가의 뼈대에 순천의 용머리 설화를 차용하여 창작된 창극이다. 작년 말 공연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가족 창극으로 호평을 받았다. 순천만의 용산에는 순천만에 살던 천 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을 하다가 아름다운 순천만의 경치에 반

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예술 감독을 맡은 이재영 명칭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을 소재로 한 전통 공연 콘텐츠를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순천의 명소를 소개한 '순천가'와 관객의 소원을 빌어주는 소원성취 발원 장면 등을 명장면으로 꼽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무성극악진흥회의 이형영 대표이사는 "내년에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공연예술 콘텐츠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단체로서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는 공연들로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